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여, 그 결과로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함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었다.(고후 6:1 각주 1)

7/15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후 6:1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4:15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8:1, 9

1 형제님들,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고후 9:8, 14

8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14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매우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후 12: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사도를 밀어내고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 즉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사도 안에서 그의 모든 것으로서 사신 분이셨다.(고전 15:10 각주 2)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 (어떤 은사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충족하는 생명이며, 완전히 성숙한 생명이고, 사도들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이었다. 즉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 어떤 기회도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을 묘사하는 세 가지 주된 예표가 있다. 이 예표들은 가나안 좋은 땅과 성전과 신부이다. ...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누리고 체험하고 동참하고 소유할 수 있는 좋은 땅이신지를 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비유했다. 그들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이집트를 떠났고(5:7),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늘에 속한 만나이시자 생수를 흘려 보내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었다(10:3-4). 이스라엘 자손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이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그 기록은 고린도후서에 있다. 비록 고린도후서는 좋은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서 우리는 좋은 땅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좋은 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신성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을 본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자신인 이 땅을 누리고 있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이시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합당한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1:12, 4:15, 6:1, 8:1, 9, 9:8, 14, 12:9). 주님의 은혜는 고린도후서의 중심 사상이며 주제이다. 고린도후서 12 장 9 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은혜’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이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얕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대가 없이 받은 호의,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어떤 것으로 여긴다. … 그러나 우리가 또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신약이 보여 주는 은혜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그분 자신(고전 15:10, 비교 갈 2:20)이며,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라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일의 목적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힘과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이다.

가장 위대한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활력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외적으로 받은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활력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우리 안에 계신 어떤 분이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10 장, 292-2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10 장

7/16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히 10:5-10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6 주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

8 위의 말씀에서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지는 것입니다).

9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10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1: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 그리스도는 좋은 땅 가나안을 할당한 것을 통해 보여지듯이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다.(골 1:12 각주 3)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참조 신 8:7 각주 1). 하나님의 음식은 그리스도의 풍성들이며, 이것은 좋은 땅의 소산으로 예표되는데, 이러한 소산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고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소산이 되실 것이다.(민 18:28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학생인 여러분은 공부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야 한다. … 트럭 운전사인 여러분은 트럭 운전이 여러분의 참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의 참된 사업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 일해야 한다. 가정주부인 여러분의 참된 일은 집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 일하고 있는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추구하고 있는가?

좋은 땅을 소유한 이후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시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대량으로 산출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매일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있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꾸며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농장에서 불철주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일은 우리에게 안식이다.

좋은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킨 후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라. ... 그들은 오직 그 땅에 대해 수고했다. 그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나무들을 가꾸었다. 이것들은 모두 그 땅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일들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좋은 땅이 여러 면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땅의 풍성이 산출되고 충분히 산출되었는가?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빈곤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이 나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려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 ...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붙이자, /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빈곤이 강도처럼, / 곤궁이 무장한 군사처럼 네게 닥치리라.”(잠 6:9-11)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이토록 부유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미국에 지극히 풍성한 땅을 주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땅의 풍성을 산출하고 풍성한 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해 왔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 세상 산업에는 너무나 분주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면에서는 너무나 게으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땅을 경작해야 한다.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영적인 나무에 물을 주어야 한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기도로 읽었는가? 형제들이여, 오늘 몇 번이나 주님을 접촉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 대해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산이 조금도 없다. 자원은 실로 풍부하지만 산출은 얼마나 빈곤한가!(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5 장, 260-2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5 장

7/17 수요일

아침의 누림

빌 3:13-14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마 14:22-23

22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를 돌려보내셨다.

23 우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출 33:11 여호와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시 119:147-148

147 저는 새벽을 고대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148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자 제 눈은 야간 파수 때를 고대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단순하게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누리기 위해 제 자신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온종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당신을 체험하고 당신만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내일의 일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주님의 농작물에 물을 주는 법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종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실지로 주님 안에 살고, 주님에 대해 수고하며, 주님을 적용하고, 주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농장’은 열매가 얼마나 많고 아름답겠는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농장에는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주일이 되어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경배하러 갈 때, 여러분은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의 주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두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 갑니다. 나에게서 여분이 있고, 오른손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남겨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5 장, 264-26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2 장 10 절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언급한다. ... 바울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형제를 용서했다. 인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얼굴 곧 눈언저리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곳으로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나타나는 곳이다. 눈언저리의 얼굴 부분은 모든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곳으로서,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 형제를 용서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적인 느낌과 생각의 표시를 따라 살았다. 이것은 매우 깊고 매우 세밀하며 매우 섬세한 것이다.

나는 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내 속에 생겼던 느낌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가 단지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세밀하게 당신의 인격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인격 안에서 사는 것이다. ... 바울은 항상 주님의 눈언저리를 따라, 곧 주님의 내적인 느낌과 생각의 표시에 따라 주님의 인격 안에서 처신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주님의 눈언저리를 바라보았고,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분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그 형제를 용서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고 있었다. 그는 용서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 따라서나 자기 자신에 따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한 것임을 고린도 사람들이 알기 원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의미이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지 않을 정도로 감소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과 생각, 그리스도의 느낌의 표현 안에서 처신하였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세밀하고 깊은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감소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 년, 2 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4 장, 235-2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년, 2 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4 장

7/18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골 3: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고전 14:26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신 12:1, 8

1 “여호와 그대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이 지켜 준행해야 할 율례와 규례는 이러합니다.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신 14:22-23

22 “그대는 해마다 밭에 씨를 뿌려 거둔 모든 소산 가운데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23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에서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의 십일조와, 그리고 그대의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항상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골 3: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고전 14:12, 15, 31

12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생각으로도 찬송할 것입니다.

31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날마다 축적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다(비교 빌 3:8-10,12-14). ...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축적했다. ...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 많았던 이유였다. 우리가 집회에 올 때, 많은 경우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혹은 기초가 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이 많지 않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체험이다. 우리는 말씀을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말할 때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참된 체험이다.(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말함, 4 장, 57-5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골 3:16, 요 15:7, 요일 2:14). 만일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두 절 내지 네 절을 기도로 읽는 것을 실행하고자 하고 이것을 매주 매달 계속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살아 있는 말씀을 풍성하게 저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저장된 것이 될 것이다. ... 그리스도의 풍성은 거룩한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은 다른 모든 책과 다르다.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참석자들에게 드릴 자원 제물로서 말할 무언가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전 14:26 과 각주 1). 우리는 모든 집회에서 단지 해야 하거나 강요받았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하여 그분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자, 참석자들이 빛 비춤 받고 영양 공급을 얻고 건축되도록 그들에게 자원하여 내놓는 제물이어야 한다.(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말함, 4 장, 58, 63 쪽)

고린도전서 14 장 26 절은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올 때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양육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교사의) 가르침이든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이상을 보여 주는 (신언자의) 계시(14:30)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다른 언어(22 절)이든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관하여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통역이든지,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은 주님께 속한 그러한 것들로 집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나 우리가 누린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 나눈 교통을 통해서 준비된다. 그리고 집회에 온 후에 우리는 영감을 기다려서는 안되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 영을 훈련하고 훈련된 생각을 사용하여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준비한 것을 주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주님께 내놓으며, 참석자들의 유익을 위해 즉 그들이 빛 비춤 받고 영양 공급을 얻고 건축되도록 그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고대의 장막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의 소산 즉 그 땅에서 수고하여 수확한 것을 잔치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께 바쳐, 주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누리실 뿐 아니라 그들이 서로 참여하도록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산을 수확하여 교회 집회에 가지고 와서 바칠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이며, 또한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성도들과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적인 누림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3, 602-6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말함, 3-4 장;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3-64

7/19 금요일

아침의 누림

신 12:5-7, 11, 13-14, 18
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6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7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11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13 그대는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14 그대는 그대의 한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18 그대는 오직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 그대와 그대의 아들과 딸, 그대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대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신 16:16 여러분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신 12:8, 13, 17).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곧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와 그분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신 12:5-6) 그들의 십일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대하 6:5-6, 요 4:20)처럼,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했다. 왜냐하면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를 지키고, 사람의 선호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비교 왕상 12:26-33 와 각주들).(신 12:5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적어도 네 가지 방식에서 신명기 12 장에 있는 계시와 일치한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시 133 편, 요 17:11, 21-23, ...).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마 18:20, 고전 1:12 과 각주들) 함께 모여야 하는데, 이 이름의 실재는 그 영이다(고전 12:3).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분열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참조 계 3:8 각주 3).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즉 신성한 영에 의해 거듭나 신성한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다(요 3:6 하, 롬 8:16, 딤후 4:22, 엡 2:22).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한다(요 4:24, 고전 14:15). 넷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마 16:24, 갈 2:20) 제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십일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요 4:24 각주 4).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이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합당한 터이다.(신 12:5 각주 1)

시편 73 편 17 절부터 28 절까지에서 우리는 시편 작가가 악인들이 잘되는 것에 관하여 자신이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얻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에 가야 한다. 일단 우리가 성소 안에 있다면 ... 우리는 악인들의 상황에 대해 또 다른 관점 곧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된다.(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0, 408 쪽)

우리가 그 땅,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장소, 한 중심지, 하나라는 한 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에 나가십시오.”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싶다. 한 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홀로 그리스도를 누릴 자유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일 때에는 자유가 없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은 주님 자신께서 정하신 바로 그곳이어야 한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5 장, 271-2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0; 윌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6 장;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11

7/20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시 26:8 오, 여호와님! 저는 주님의 처소인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시 29:9 여호와와의 음성이 암사슴을 새끼 낳게 하고 숲을 말갱게 버기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 하고 외치네.

시 27:4-6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5 환난 날에 그분은 나를 그분의 피신처에 감춰 주시고 그분의 천막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시며 반석 위에 세워 주시리라.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나는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를 읊으리라.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하신 뭍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거룩한 성은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한다(시 48:1-2). 그리고 거룩한 성전은 ...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상징한다(엡 2:21, 딤페전 3:15).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다.(왕상 8:48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어느 정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명확하고 참된 의미에서 우리의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주소지를 얻게 되실 것이다. ...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 주식회사’가 있는 바로 그곳이다. ... 고린도전서 14 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온다면, 사람들은 앞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 많은 믿는 이들과 연합되고 섞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음식이시고 음료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특별한 존재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를 조금 먹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를 조금 먹었다고 하자. 그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는 점차적으로 그에게 소화되고 그와 연합되어, 그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다. 그가 자신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일 때, 그도 그리스도를 가져오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가져온다. ... 그들은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함께 모일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시한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신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은 확대되어야 한다. ... 성전은 하나님의 권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확대된다. ... 이것은 매우 실지적인 것이다.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때, 그리스도의 권위의 실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한 누림 가운데서, 그러한 누림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서로서로에게 매우 복종하게 된다. 우리는 복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린 후에 말다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누림이 있는데 서로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원수와 싸우기 위해 군대로 편성되었는데, 군대 안에서 서로 싸울 수 있겠는가? ... 복종이 없다면 군대도 없다. ... 만일 우리 가운데 복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전을 확대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땅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성전과 성은 그리스도의 총만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의 총만은 몸 곧 교회이다. ...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 그분의 은혜에 의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지를 배우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며, 결국 성도들과 함께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수고함으로 성전과 성이 존재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6 장, 285-290 쪽)

이 유일한 합병체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먹으며 그분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먹는 문제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요 6:48, 57)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합병체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위대한 합병체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이며 결국 새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5 장, 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6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3-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판, 16장;

찬송: 1168 (英) 좋은 땅 예수를 경작하세

1 좋은 땅 예수를 경작하세
일구고 씨 뿌려 물 주면서
실재의 소산이 생산되어
내 안에 수확을 거두겠네

(후렴)

내가 경작해야 할 주는 좋은 그 땅
전부 얻을 때까지 점점 차지하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으니
나 오직 주님 자신만 소유하기 원해.

2 결심해 예수를 경작하세
후회하지 않고 수고하리
나 경작할 때에 비 주시리
넘치는 소득을 얻게 하리

3 실지로 예수를 경작하세
영 안에 그 말씀 기도하며
산 기름 바름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 함께 건축하세

4 경작해 실재를 생산하세
총만한 집회를 누리면서
주님의 산 임재 넘칠 때에
하나님 사람 다 만족하네

5 주 확장 위하여 경작하세
주 거처 안에서 잔치 누리
넘치는 모든 것 주께 드려
풍성을 나누며 기뻐하세

7/21 주일

아침의 누림

창 2:10-15

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12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15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계 21:9-10, 19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9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